

# 도, 삼락농정 실현 본궤도 진입

### 운영위원회, 대표 거버넌스 정착 협의회사 핵심사업·현안 등 논의

농민이 중심인 대한민국 대표 농정 거버넌스 '삼락농정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7년 상반기 활동사항, 삼락농정 핵심사업과 농정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삼락농정위원회는 바쁜 영농활동 중에도 40차례나 분과회의, 운영소위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

사업 발굴은 분과회의 중심으로 농업 농촌 현장 방문, 타 지역 선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현장의 요구도가 높은 '농업 인력지원 센터 구축',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클린 라이프 농촌지원', '내수면 수산물 소비촉진 마케

팅' 등 23개 사업을 발굴 제안했다.

농정 현안은 '삼락농정 포럼'을 통해 상반기 동안 농업·농촌의 미래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농생명 분야 대응전략' 포럼과 '농가 양극화 해소방안', '전라북도 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와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5회 개최했다.

아울러, 삼락농정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농·림·축·수·식품 등 사업부서 과장들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생생마을 만들기, 고능력 압축곡 조성, 양식장 경쟁력강화' 등의 핵심사업 추진

상황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삼락농정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는 분야별 신규 발굴사업의 2018년 예산 반영, 중앙정부 건의할 제도 개선과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마을상품 소비활성화', '미래 지향적 전북 축산 발전 방안' 등 농정현안에 대한 삼락농정 포럼도 14차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삼락농정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삼락농정 실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고, 대한민국 대표 농정 거버넌스로 정착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자회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김명곤 공동위원장은 지난 3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 전북, 전략산업 기업 키우기 '밀착 지원'

### 기업투자 IR·상담회 개최 총 9개기업 협약 시도 나서

전북 전략산업분야 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투자유치 한마당이 열렸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29일, 도내 전략산업 기업의 역량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2017 지역 전략산업 기업투자 IR 및 상담회'를 지난 31일 전북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투자 IR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지역 전략산업 투자유치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 9개 기업이 벤처캐피탈사와의 투자협약을 시도한다.

IR에 나서는 기업은 ▲탄소분야(인예코, 쏘우넷, 신영, 디엔티) ▲농생명 분야(비앰, 에스캐프) ▲문화CT분야(셀러드파이, 저요, 손짱) 등으로 전북센터는 전북 최초로 이들 기업에게 기초교육부터 IR자료제작, 개별피칭 멘토링, 모의IR 등 투자유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왔다.

또한 전북센터는 IR과 더불어 전문

VC사(SJ투자파트너스, 서울투자파트너스, AAI엔젤투자클럽)와의 투자 상담도 주선하며 도내 전략산업 기업들의 자금 유치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전북센터가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지역 전략산업 투자유치활성화 사업'은 벤처캐피탈분야 9개사와 크라우드펀딩분야 6개사로 구분되며 크라우드펀딩 분야의 경우 플랫폼 중개사인 (주)와이즈와 파트너협약을 맺고 9월부터 기업의 투자 런칭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화

###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친환경 에너지 사용촉진 도모

전북도는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보급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난 6월 9일부터 전용번호판 부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는 전용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6월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하여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

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번호판 교부대행업소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 등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김진성 기자

### 서민 울리는 부동산 떴다방

###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돌입

전주시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우미린 2차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에서 제외된 지방 도시에 투기 수요가 불리고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효천지구 우미린 2차 아파트 견본주택 오픈 시 기인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시도, 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반 1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 행위 등이다.

전주시는 단속결과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종영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간헐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공직자 기강 하이문제 책임 통감"

### 군산시공무원노조 사과성명

### 신뢰 회복위한 노력 다짐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하이 문제가 계속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자체 노력을 다짐하는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1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운)은 성명을 발표하고 군산지역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기에 공직자들의 공직기강문제로 시민에게 실망을 주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대다수 공직자가 맡은 바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문제

는 노조전체의 문제로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만큼 노조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정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내부 적폐청산을 앞장 설 것과 부정부패,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또 공직자로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적극 동참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성운 노조위원장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시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책임을 통감하고 자정하는 자세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무너진 신뢰와 희망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현기 기자

## 식품기업 창업하고 싶은 청년 모여라

###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상자 8일까지 지원센터서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 내에 식품기업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대학생·청년 등이 창업과 관련된 준비과정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푸드폴리스 창업지원 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푸드폴리스(FoodPols)는 Food(식품)

+ Pils(도시) ⇒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식품도시를 의미한다.

푸드폴리스 창업지원 랩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제품기획부터 시제품 생산·테스트·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창업과정을 직접 실습·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오는 9월 8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pols.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